

제주도 민요의 분류체계

변성구*

차례

1. 서론
2. 선행 한국민요 분류체계 검토
3. 한국민요의 분류기준과 분류체계 모색
4. 제주도 민요의 분류와 실제
5. 결론

1. 서론

민요분류는 채록된 노래의 성격과 위상을 규명하고 유형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그렇기에 민요 분류는 민요를 학문의 대상이 되게 하는 기초작업이며, 동시에 민요 연구의 최종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1920년대 이후 일제식민지 시대이긴 하지만 민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름대로 민요 수집이 이루어지고, 민요자료집이 간행되면서 민요분류도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당시 민요분류에 대한 방법적, 이론적 고찰 없이 편의상 분류가 이루어졌으며, 민요 유형에 대한 명칭 역시 일정한 규칙 없이 붙여져 사용되었다.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해방 이후 본격적인 민요자료집이 간행되면서 나름대로 민요분류가 시도되었으며, 더러는 분류방법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민요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합당한 분류체계로서 널리 인정할만한 것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한국민요의 분류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것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¹⁾ 외국에서 이루어진 민요분류체계를 그대로 한국 민요분류에 적용할 수도 없다. 이것은 민요는 전승되는 지역 또는 그 나라의 고유한 생활 방식과 풍습에 따라 달리 전승된다는, 민요가 지닌 유다른 속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요 조사와 학문적 연구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민요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민요의 분류체계 정립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민요분류는 수집된 민요를 체계화하고 나름대로 노래의 의미와 성격을 규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민요의 분류방법이나 분류체계의 정립은 민요의 자료 정리 및 연구의 기초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존의 민요분류 방법과 기준, 분류체계를 검토하면서 한국민요의 전승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반적인 민요분류방법과 체계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국민요 속의 제주민요의 위상을 찾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주도 민요분류체계를 설정하고, 그 결과 나타난 제주도 민요의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한국민요 분류체계 검토

1) 해방 이전의 민요분류

본격적인 민요 수집은 1919년 3·1운동 이후 민족 자각에 의해 개화기

1)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하)』(민속원, 2002), 91쪽.

신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고,²⁾ 1930년대 이후 조사 성과가 상당한 양으로 축적되면서 자료집 발간이 이어졌다. 자료집 발간을 위해 조사된 민요의 분류가 시도되었는데, 자료집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 분류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분류들은 분류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수집된 민요들을 편의대로 항목을 정해 배열해 놓은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³⁾

처음으로 한국민요의 분류 시도는 김소운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소운은 日文으로 펴낸 『조선민요선』⁴⁾에서는 민요, 동요, 부요로 唱者별 분류를 시도했으며, 이어 언문으로 된 『조선구전문요집』⁵⁾에서는 地域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1차로 道府郡別로 분류한 후 채집자의 이름아래 그 사람의 주소지인 面과 里도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포함시켜 분류하고 있다.

임화는 『조선민요선』⁶⁾에서 장르, 내용, 기능 중에서 두드러진 성격에 따라 분류하였고, 김사엽·최상수·방종현의 『조선민요집성』⁷⁾은 해방이후 발간되었지만, 임화의 분류 결과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분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⁸⁾고 평가되는데, 여기서는 唱者에 따라 부요, 남녀공요, 남요, 동요, 기타요로 분류하였으며, 제주도 민요를 별도로 첨가하였다.

이상 해방 이전의 민요자료집을 통해 한국민요의 분류 양상을 살펴보면,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라기보다는 자료 배열의 편의를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 2) 김무현, 『한국민요문학론』(집문당, 1987), 22쪽.
 - 3) 박경수, 『한국민요의 유형과 성격』(국학자료원, 1998), 13쪽.
 - 4) 김소운, 『조선민요선(일문)』(태문관, 1929).
 - 5)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문요집』(동경:제일서방, 1933).
 - 6) 임화, 『조선민요선』(이재선 교주, 학예사, 1939).
 - 7) 김사엽·최상수·방종현, 『조선민요집성』(정음사, 1948).
 - 8) 박경수, 위의 책, 14쪽.

2) 해방 이후의 민요분류

(1) 고정옥의 분류

민요분류에 있어서 본격적인 시도는 고정옥의 『조선민요연구』(수선사, 1949)에서 이루어졌다. 고정옥은 민요분류가 문학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준이 가능하다고 하고, 11가지 기준⁹⁾을 제시한 후 이 중에 내용, 歌者의 성·연령, 노래와 민족생활의 결합 면을 고려한 종합적 분류를 시도했다. 이는 어떤 내용의 노래를, 누가, 무엇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인가, 즉 내용, 창자, 기능에 초점을 맞춘 분류¹⁰⁾라고 할 수 있다. 고정옥의 분류는 고위민의 『조선민요의 분류』(1941, 춘추)라는 논문에서 제시한 분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¹⁾

고위민은 위 논문에서 한국민요를

- (1) 남요 : 근로요, 타령, 양반노래, 도덕노래, 무상요, 취락요, 아리랑 등
- (2) 동남동녀 문답요 : 상주 창성 공갈못계, 일흔대기계 등
- (3) 부요 : 시집살이노래, 작업요(베틀노래, 방아노래, 밭매기노래), 모녀애련요(자장가, 계녀요 등), 여탄가(청상요, 첩노래 등), 정렬가, 꽃노래
- (4) 동녀요 : 채채요, 감상요, 치장요

로 구분하였다.

고정옥은 고위민을 따라

- (1) 남요 : 노동요, 타령, 양반노래, 도덕가, 취락요...동남동녀문답체요 등
- (2) 부요 : 시집살이노래, 작업요(베틀노래, 맷돌노래, 밭매기노래 등),

9) 고정옥, 『조선민요연구』(수선사, 1949), 96~106쪽에 ①내용, ②歌者의 성·연령, ③가창지역, ④노래의 시대성(新古), ⑤노래와 민족생활의 결합면, ⑥노래의 형태, ⑦곡조 또는 명칭, ⑧장단(길이), ⑨성립 조건, 음율, 표현상 경향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고 했다.

10) 김영돈, 앞의 책, 92쪽.

11) 김무현, 『한국민요문학론』(집문당, 1987), 24쪽에 소개된 고위민의 논문을 보면, 고위민이 제시한 민요분류의 기준으로 내용, 요자의 성과 노약, 지역, 新古, 접촉되는 생활면, 형식, 곡조, 명칭, 언어의 귀천, 장단, 후렴의 유무, 요자수 등등을 제시하고, 이중에 내용, 요자의 성과 노약, 접촉하는 생활면, 명칭 등을 고려하여 조선민요분류를 시험해 보았다고 하였다.

모녀애련가(자장가, 계녀가 등), 여탄가(팔자노래, 청상가 등), 열녀가, 꽃노래, 동녀요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1단계는 창자의 성별에 따라 남요, 여요로, 2단계는 내용에 따라, 3단계는 기능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이 분류가 고위민의 분류와 다른 점은 동남동녀문답체요를 남요로, 동녀요를 여요로 합쳐 분류한 점을 들 수 있다. 문제점은 2단계의 내용에 따른 분류에 동남동녀문답체요와 동녀요를 포함시킨 것은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며, 차라리 동요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분류가 아닌가 한다.

(2) 임동권의 분류

임동권은 고정옥의 창자에 따른 분류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분류의 진전을 보여준다. 임동권은 『한국민요집』 I(동국문화사, 1961)과 II~III(집문당, 1975-1981)을 내면서 한국민요를 362형으로 세분하였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민요분류의 방법’¹²⁾이란 글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①창자의 연령·성별, ②주제 및 내용, ③가창 과정의 세 가지 조건으로 민요를 분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는 고정옥의 창자, 내용, 기능의 기준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분류라고 볼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임동권이 분류한 민요분류표의 대강을 살펴보면,

먼저 창자의 연령에 따라 민요와 동요로 대별한 다음, 내용과 기능에 따라
민요 : 노동요, 신앙성요, 내방요, 정연요, 만가, 타령, 설화요

동요 : 동물요, 식물요, 연모요, 애무·자장요, 정서요, 자연요, 풍소요, 어희요, 수요, 유희요, 기타요

로 분류하고, 하위 분류로 362개의 항목을 설정하여 민요를 분류하고 있다.

임동권의 분류는 가장 많고 다양한 민요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민요의 존재양상을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분류작업으로 기존의 분류와는 어느

12) 임동권, “민요분류의 방법”, 『어문학』8(한국어문학회, 1962), 28쪽.

정도 체계화된 분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분류 기준의 적용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1 단계에서는 고정옥과 달리 창자의 성별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민요와 동요를 나누어 분류하였는데, 이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민요의 경우 중간 분류에서 노동요, 신앙성요, 내방요, 정연요 등 내용과 기능을 동시에 적용하여 분류함으로써 혼합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혼합분류의 문제점은 한 가지 노래가 어떤 기준을 따르느냐에 따라 이중, 삼중으로 소속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예로 방아노래에서 불려진 시집살이 사설은 기능상 노동요이지만, 내용상 내방요로 분류될 수 있다. 민요의 세분화된 분류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기준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분류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장덕순·김영돈·조동일의 분류

이들은 임동권의 분류에서 초래된 혼합분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단계별 일정한 기준을 적용한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김영돈의 『제주도민요연구(상·하)』, 조동일의 『경북민요』 등에서는 기능을 주 기준으로 하여 단계별로 민요분류가 시도되었다.

장덕순 외 2인의 『구비문화개설』에서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위분류까지 체계적인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오늘날 가장 보편화된 분류체계로서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분류에 의하면,

1단계는 기능성의 유무에 따라 기능요와 비기능요로, 2단계는 생활상 기능의 종류에 따라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3단계는 기능의 양태에 따라 노동요는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운반노동요, 토목노동요, 채취노동요, 길쌈노동요, 제분노동요, 수공업노동요, 가내노동요로, 의식요는 세시 의식요, 장례의식요로, 유희요는 무용유희, 경기유희, 기구유희, 언어유희요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4단계에 이르러서 발 밟는 노래, 발 매는 노래 등 구체적인 노래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방대한 실제 민요자료를 폭넓게 검토해서 민요의 실상에 맞게 더욱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가내노동요는 노래하는 장소에 따른 분류로 파악될 수 있기에 하위유형의 분류체계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김영돈은 『제주도민요연구(상)』에서 제주도 민요를 기능과 내용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1단계는 노동요편, 타령류편, 동요편으로, 2단계는 기능에 따라 멧돌·방아노래, 해녀노래 등으로, 3단계는 기능과 내용에 따라 멧돌노래, 방아노래, 자립근면의 노래, 팔자한탄의 노래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의 문제는 첫째, 상위분류의 동요는 기능상 분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둘째, 멧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의 경우 기능과 내용의 혼합분류가 이루어졌고 셋째, 만가를 타령류편에 분류함으로써 의식요 항목을 설정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분류는 수집된 제주도 민요를 자료집으로 발간하기 위한 편의에서 이루어진 분류로, 한국민요 일반의 분류체계로서는 미흡하다. 김영돈은 이런 문제점을 자료집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다양한 제주도 민요 자료의 분석과 『구비문화개설』의 분류안을 수용하여 보완하고 있다.

그 결과 김영돈은 『제주도민요연구(하)』의 “제주 민요분류의 실제”¹³⁾에서

노동요 : 농업요, 제분요, 어업요, 벌채요, 관망요, 잡역요

의식요 : 행상노래, 달구노래, 진토굿파는 노래

창민요 : 오들또기, 이야흥, 서우젯소리, 산천초목 등

동요 : 동식물요, 천체기상요, 유희요, 풍소요, 어회요, 자장가, 기타요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기능 중심으로 제주도 민요를 분류함으로써 제주도 민요의 실상을 여실히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상위분류에서 노동요, 동요 등이 일정한 기준을 고려한 분류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과 기능요에서 성인 무용·유희요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한계로 남는다.

조동일 역시 기능별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경북민요를 분류하였으나 분류 대상 자료가 경북지역의 민요에 한정되어 있기에 세분화된 분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13) 김영돈, 앞의 책, 97~112쪽.

(4) 정동화·김무현의 분류

정동화는 『한국민요의 사적연구』¹⁴⁾에서 1단계는 시대, 2단계는 연령 및 성별, 3단계는 기능, 4단계는 내용 및 제목별 구분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실제 분류에서는 단계별 기준과 무관한 기능상 분류, 구성상 분류, 주제별 분류, 가창상 분류, 주제 및 직능상의 복합적 분류라는 기준에 따라 분류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노동요는 기능상, 주제상, 복합적 분류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상호관련성이나 체계성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 분류의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크게 따르는 시범적 분류로 볼 수밖에 없다.¹⁵⁾

김무현은 민요의 원류적 뿌리는 노동요임에 착안하여 1단계, 즉 큰갈래는 기능에 따라 노동민요, 유희민요, 종교민요, 정치민요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2단계부터 하위갈래는 개별성을 존중하여 각각 독자적인 기준 원칙을 설정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다.

첫째, 노동민요의 경우 노동의 생산목적에 따라 의노동요, 식노동요, 주노동요로, 노동생산의 공간에 따라 집안노동요, 집밖노동요(산, 들, 물 노동요)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아기재우는소리(자장가)와 상여소리를 주 노동요 중 집안노동요로 분류한 것은 적절한 분류로 보기 어렵다.

둘째, 유희민요는 내용과 유희기구의 유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타령유희요, 계절유희요, 동물유희요, 식물유희요 장난감유희요, 맨손유희요 등으로 분류했다. 문제점은 두 기준의 혼합적 분류라는 점과 동요를 따라 구분하지 않고 유희요에 포함시킨 점이다. 필자는 동요를 유희민요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점을 여섯 가지 이유를 근거로 제시¹⁶⁾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셋째, 종교민요는 1단계 내용별, 2단계 내용과 기능별 분류를 혼용하여 불교민요, 유교민요, 기독교민요, 한국주체종교민요로 분류해놓고, 유교민

14) 정동화, 『한국민요의 사적연구』(일조각, 1981), 141-145쪽.

15) 김무현, 앞의 책, 47쪽.

16) 김무현, 앞의 책, 60~61쪽.

으나 기독교민요는 자료가 눈에 띄지 않지만, 앞으로 자료수집의 확대나 연구의 심화를 위해 목록을 설정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주체종교민요는 용어상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무속요나 세시풍속요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분류가 될 듯하다.

넷째, 정치민요는 1단계 분류에서 시간별 기준을 적용하여 8·15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이전은 한역 정치민요(삼국 정치민요, 고려 정치민요, 조선 정치민요)와 구전 정치민요(조선 정치민요, 동학정치민요, 일제치하민요)로, 이후는 현대 정치민요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문헌에 한역으로 기록된 예언 풍자적인 참요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며, 현대 산업 사회의 풍자적인 민요류도 일부 추가하여 정치민요로 분류함으로써 여타의 학자들과는 다른 관점의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정치민요에 대해 그 기능상 노동요나 유희요, 종교요들과는 다른 민요이지만 내용으로 볼 때 노동요나 유희요로도 볼릴 수 있는 복합성을 가지게 됨을 언급함으로써 민요분류의 일관성에 결함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김무현은 이상의 분류를 일반 분류라 칭하고, 특수분류로서 시간상, 공간상, 내용상, 형식상, 기능상, 음악상, 노동수단상, 현대산업별, 성별, 연령별 기준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5) 박경수의 분류

박경수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분류체계가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국 민요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분류시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가장 최근에 시도하였다. 그는 “한국민요의 기능별 분류체계”¹⁷⁾에서 기존의 민요분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민요의 기능별 성격에 따라 유형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분류체계는 장덕순의 『구비문학개설』의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기능의 유무와 성격에 따라 기능요와 비기능요로,

17) 박경수, “한국민요의 기능별 분류체계”, 『민요론집』 제2호(민요학회 편, 민속원, 1993)에서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민요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능중심으로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

기능요는 다시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분류하고 있다.

노동요는 다시 노동요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벌채노동요, 길쌈노동요, 제분노동요, 잡역노동요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농업노동요는 논농사요와 밭농사요로, 그리고 농사일의 진행순서에 따라 불리는 민요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어업노동요는 어부어업요와 해녀어업요로, 벌채노동요는 노동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벌목노동요와 채취노동요로, 길쌈노동요는 중간단위항을 길쌈노동요 하나로, 제분노동요는 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방아노동요와 맷돌노동요로, 잡역노동요는 노동의 성격 차이에 따라 운반, 토목, 수공, 관망, 가사, 제염, 물이, 산술노동요로 중간단위항을 분류하고, 이어 민요 종류별로 하위분류를 하였다.

의식요는 의식의 성격에 따라 세시의식요, 장례의식요, 신앙의식요로 나누고 있다. 다시 세시의식요는 가정의식요, 부락의식요로 나누었고, 장례의식요는 장례운구요와 장례토목요로, 신앙의식요는 불교의식요, 무속의식요, 속신의식요로 중간단위항을 나눈 후 각 노래를 분류하였다.

유희요는 유희의 실제 진행양상, 유희의 수단, 방법을 근거로 세시유희요, 경기유희요, 조형유희요, 풍소유희요, 언어유희요로 중간단위를 분류하고 있다. 이어 세시유희요는 유희의 수단, 방법에 따라 도구유희요, 무용유희요, 축제유희요로, 경기유희요는 도구의 사용 여부, 몸기술이나 동작의 비중에 따라 도구유희요, 곡예유희요, 동작유희요로, 조형유희요는 놀이의 양상에 따라 조각유희요, 그림유희요 등으로, 풍소유희요는 풍소의 대상에 따라 인물유희요, 신체유희요, 버릇유희요, 동물유희요, 곤충유희요, 자연유희요 등으로, 언어유희요는 유희의 방법에 따라 문자유희요, 말소리유희요 등으로 분류하였다.

박경수의 분류체계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분류체계보다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전국의 민요를 정리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작업으로 다양한 종류의 민요를 검토한 데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기능상의 종류와 성격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일관된 분류를 한 데 있다고 하겠다. 한 예로 '모내기 노래'의 분류를 예

로 들면, '기능요-노동요-농업노동요-논농사요-모내기노래'와 같이 상위에서 하위 단위까지 체계가 정연하게 되어 있다.

박경수의 이 분류체계는 장덕순 외 『한국구비문학개설』에서 제기한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체계를 더욱 세분화하고 체계화했다는 데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이 분류의 문제는 첫째, 민요와 동요에 대한 별도의 구분 없이 분류를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김무현의 분류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분류안을 보면 대부분의 동요는 유희요로 분류되었으며, 자장노래(자장가), 애기 어르는 노래는 가사노동요로 분류해놓고 있다. 결국 이 분류안을 따른다면 동요의 개념과 위상은 성립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남는다. 동요 역시 넓은 의미의 민요이지만, 이처럼 민요의 하위 갈래에 몰아놓아 서자격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민요와 바탕이 다른 동요의 특성을 살려 분리, 독립시킴이 옳다¹⁸⁾라는 지적이 있듯이 독립된 갈래로 인정하는 분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둘째, 한국민요에 대한 분류를 시도했음에도 비기능요, 일명 창민요, 타령에 대해서는 기능이란 관점에서 더 이상 분류할 수 없기에 기능별 분류에서는 비기능요 한 항목으로 뭉뚱그려 처리할 수밖에 없다¹⁹⁾고 하여 더 이상 하위 유형에 대해서는 분류해내지 못했다. 다만, 내용별 분류에서 비기능요의 구체적 양상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남은 과제로 처리하였다. 결국 한국민요 전반이 아니라 기능요의 분류체계 정립에 머물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민요의 분류기준과 분류체계 모색

민요 수집의 역사에서 민요의 분류 기준을 알 수 있는 기록은 조선 초

18) 김영돈, “동요”, 『한국민속대관Ⅵ』(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354~395쪽.

19) 박경수, 앞의 책, 137쪽.

민요를 수집했던 박연의 상소문을 통해 그 일부를 알 수 있다.

세종 때 박연이 민요채록을 주장한 상소문을 보면,

“수집된 가사를 분류함에 있어 기중 君臣道合 父子思心 夫婦節義 兄弟友愛 朋友諸信 實主同歎 등 성정의 바름에 發하여 人倫世教에 관한 것은 正風으로 하고, 男女相悅 淫遊姦惡 逞慾無恥하며 綱常에 부끄러운 것은 變風으로 하자.”²⁰⁾

하고 하여, 수집된 가사를 그 내용에 따라 정풍과 변풍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내용에 따른 분류인 셈이다.

이처럼 민요의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의 설정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일정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민요의 일반적인 분류원칙은 첫째, 민요의 성립과 존재양상을 여실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민요는 생활 현장에서 구연자가 구연함으로써 성립되고, 기능, 창곡, 사설의 상호 결합에 의해 존재하는 구비문학의 한 갈래이기에 민요분류에서는 구연자가 누구인가와 이 세 구성 요소의 상호 결합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피는 작업이 중요하다. 특히 기능은 민요 구연의 현장적 의미를 나타냄과 동시에 민요 생성의 바탕이면서 전승의 주요한 동인이기에 민요분류에서 중요한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고정적인 기능의 노래나 비기능의 노래는 분류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복합기능, 유동기능, 유사기능의 노래는 분류에 있어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복합기능의 노래는 궁극적인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며, 유동기능²¹⁾의 노래, 특히 비기능요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현장에서 불

20) 세종실록, 권 47, 12년 2월조.(김무현, 『한국민요문학론』, 집문당, 1987, 21쪽서 재인용)

21) 박경수, 앞의 책, 30쪽. 박경수는 기능요의 비기능요화, 또는 비기능요의 기능요화를 언급하고, 이런 기능을 유동기능이라고 하면서, 예로 시집살이노래와 신세타령노래는 본래 비기능요지만 방아를 찧을 때, 발매기를 할 때 불려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기능요의 구실을 한다고 하였다.

려진 경우는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이와 반대로 기능이 비기능요로 전환된 것은 비기능요로 분류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기능의 민요는 불러지는 현장의 기능에 따라 개별분류 항목을 설정하여 분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둘째, 기존에 수집된 민요뿐만 아니라 새롭게 수집된 민요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민요를 분류하는 데 기존의 자료를 포함하지 못하는 분류는 그 체계성이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복합적 분류가 아니라 단계별 분류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은 또한 현재는 조사된 자료가 없지만,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노래를 분류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 개방적인 분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이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분류기준이 설정되고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분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민요는 구연자가 구연함으로써 성립되지만, 구연자의 구연 능력이나 태도, 구연시기, 그리고 구연상황은 민요 유형의 세부적인 차이를 나타낼 뿐 존재 양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처럼 개별 구연자의 능력, 구연시기 등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불러지는 노래를 각편(version)이라 한다. 각편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연의 기회가 많을수록 풍부한 모습을 띠게 된다. 그래서 민요의 지역적 분포나 유형의 특징을 살필 수 있으며, 민요의 전승과 변이를 연구하는 중요한 대상이 된다. 또한 민요 분류에서도 다양한 각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각편이 지닌 공통된 구조나 구연상황, 내용 등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편은 민요 분류의 구체적인 자료인 셈이다.

한편 민요는 각편들의 공통된 구조·내용과 그 특징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한 가지 노래로 존재한다. 이 각편들의 총합인 한 가지 노래를 유형(類型: type)이라고 한다.²²⁾ 각편이 민요 구연의 현장성을 드러낸 개별

22) 박경수, 위의 책, 160쪽. 김홍규·김우창 공편, 『문학의 지평』(고려대출판부, 1984), 337~228쪽에서 각편과 유형이란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적이고 구체적인 노래라고 하면, 유형은 이러한 각편이 모여서 이루어진 총체적이고 추상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예로 1960년 제주시 삼도2동에서 양민선(여·66)이 부른 해녀노래와 1979년 4월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에서 박순덕(여·67)이 부른 해녀노래는 모두 각편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역, 시기, 구연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구연자가 부른 노래를 우리는 해녀노래라고 할 때, 이는 유형에 해당한다.

결국 민요분류는 각편들의 유형을 판별하고 그 유형을 대상으로 삼아 다른 유형과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유형의 성격을 규정하는 작업이다.

그러기에 민요분류는 민요 유형을 판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판별 기준은 창자, 가창방식, 시대, 지역, 내용, 율격, 장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민요의 성립과 존재양상을 나타내는 구성요소인 가락·사설·기능의 세 요소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요분류는 이 세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행해져야 할 사항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적용한 분류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박경수는 세 요소 중 민요를 다른 시가갈래와 구별짓게 하는 요소를 기능이라고 보고, 기능적 성격을 중심으로 기능요, 비기능요로 구분하였으며, 김영돈 역시 기능 중심에 사설 내용을 부차적으로 적용하여 분류하였고, 음악적 측면에서 제주도 민요를 연구한 조영배는 연행적 요소(기능)와 음악적 요소를 토대로 제주도 민요를 분류하고 있는데, 음악외적 기능요인 토속민요와 음악내적 기능요인 통속민요로 구분하고 있다.

세 가지 구성요소를 동시에 적용하여 민요를 분류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론일 수 있다. 필자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기능에 초점을 두면서, 동시에 민요를 구연하는 주체인 창자를 분류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인가', 즉 창자와 기능을 주된 분류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단계별로 적용한 민요분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민요를 분류해보면,

1단계는 창자, 그것도 창자의 성별이 아니라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한

다. 그 결과 민요는 성인의 노래인 민요와 아동의 노래인 동요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동요를 광의의 민요로 포함시키면서도 동시에 동요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분류로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2단계는 민요의 기능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 분류는 기능이 유무에 따라 기능요와 비기능요로 대별해 된다. 다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즉 기능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기능요는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분류될 것이다. 창민요, 타령 등으로 일컬어지는 비기능요는 노래 자체의 즐거움 때문에 부르는 유희적인 노래, 즉 유희요로 처리할 수 있다.

동요는 기능상 유희요의 성격이 강한 만큼 놀이의 대상에 따라 동식물요, 천체기상요, 유희요, 풍소요, 어회요, 자장가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는 김영돈의 『제주도민요연구(하)』의 분류를 근간으로 한 것으로 기타요를 제외하였다. 기타요는 다른 항목으로 분류해 넣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하 중간 하위 분류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3단계는 중간하위 분류에 해당한다. 기능요는 대체로 기능과 창곡, 사설의 상호 결합관계가 고정적이기에 기능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기능요는 박경수의 민요분류 체계를 근간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단, 유희요에 포함된 동요는 제외하여 2단계 동요 항목에서 다루었다.

노동요 :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벌채노동요, 제분노동요, 길쌈노동요, 잡역노동요(운반, 토목, 수공, 관망, 가사, 제염, 물이, 산술노동요)

의식요 : 세시의식요, 장례의식요, 신앙의식요

유희요 : 무용유희요, 경기유희요, 도구유희요, 언어유희요

비기능요는 음악적, 유희적 성격이 강한 민요(유희요)로 기능과 창곡, 기능과 사설간의 상호 결합이 유동적이기에 기능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

라 하위 분류를 할 수가 없다. 단지 전승 지역의 음악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에 지역별 분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미 음악계에서는 많이 활용하는 음악적 특성과 지역에 따른 다음과 분류를 수용하고자 한다.

남도민요 : 옥지배기토리 / 전라도 지역 : 새타령, 옥자배기, 농부가, 진도아리랑, 까투리타령, 강강수월래 등

서도민요 : 수심가토리 / 황해도·평안도 지역 : 수심가, 배따라기, 영변가, 난봉가, 몽금포타령 등

경기민요 : 경토리 / 서울·경기지역 : 창부타령, 노랫가락, 아리랑, 이별가, 청춘가, 도라지타령, 노들강변, 배틀가, 방아타령, 경복궁타령, 날니리아 등

동부민요 : 메나리토리 /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지역 : 밀양아리랑, 쾌지나칭칭나네, 정선아리랑, 한오백년, 신고산타령 등

제주민요 : 제주토리 / 제주지역 : 오돌또기, 이야흥, 너영나영, 서우젓소리, 봉지가, 산천초목 등

위에서는 지역별 선율의 특성에 따라 유흥요를 분류하고 있다.

4단계는 유형의 특성에 따라 하위 분류가 가능한 경우, 한 단계 더 세분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최종적인 유형 분류로 마무리지을 수 있다. 기능요는 중간 단계인 노동요의 경우 농업노동요는 농사 형태에 따라 논농사요와 밭농사요로, 밭농사요는 다시 농사일의 진행 순서에 따라 밭가는 노래, 밭 밟는 노래, 밭 매는 노래, 타작노래 등으로 최종 분류가 될 수 있다. 비기능요는 더 이상 하위 분류가 불가능하므로 위 3단계처럼 지역별로 유형을 분류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다면 현재까지 구전되어온 한국민요의 전반을 분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분류체계가 미흡하나마 정립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단, 여기서 김무현이 분류한 정치요에 대한 해결이 미흡한 과제도 남는다. 예

로 근대 정치적 사건과 연관된 광복군 아리랑을 기능성을 띤 정치요로 분류하느냐, 아니면 아리랑에 포함시켜 비기능요로 해야 할 것인지는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4. 제주도 민요의 분류와 실제

1) 제주도 민요의 분류 방법

제주도 민요는 한국민요의 전반적인 분류체계 속에서 분류가 이루어져야 제주도 민요의 실상을 여실히 밝혀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위에서 모색한 분류기준과 분류체계를 적용해서 제주도 민요분류체계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민요는 전승되는 특정 지역의 향토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대로 일치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민요의 분류체계를 벗어난 분류 역시 온전한 분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 민요의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수집된 제주도 민요 자료를 온전히 분류해내고자 하는 기초적인 목적 외에 앞으로 민요 조사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더 나아가 분류체계를 통해 제주도 민요의 특징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민요의 분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민요자료집과 저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① 진성기, 『남국의 민요』, 제주도민속연구소, 1958.
- ② 김영삼,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 1963.
- ③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 ④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1,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981, 1982.
- ⑤ MBC,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문화방송라디오국, 1992.

- ⑥ 조영배, 『제주도노동요연구』, 도서출판예술, 1992.
- ⑦ 제주도, 『제주의 민요』, 제주도청, 1992.
- ⑧ 좌혜경, 『제주전승동요』, 집문당, 1993.
- ⑨ 윤치부, <제주전래동요사전>, (민속원, 1999)
- ⑩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하)>, (민속원, 2002)

①은 초창기 자료집이지만 『제주도민요집』1,2,3집에 실린 1500여수를 저자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 분류 일람표를 작성해 놓았는데, 첫째 기준은 창자에 의해 남요, 부요, 남녀요로 3대별한 후 남요는 오락가, 만가, 근로가로, 여요는 자탄가, 정가, 경세가, 근로가로, 남녀요는 타령, 근로가, 동요, 토속가, 문답가로 하위 분류를 해 놓고, 이어서 각 유형별로 최종 분류를 해놓고 있다. 이 분류는 먼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분류했다기보다는 역으로 수집한 자료를 배열하면서 비슷한 유형끼리 모아서 분류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 기준을 굳이 살펴보면 2단계는 내용과 기능의 혼합된 분류로 보인다.

②는 민요에 대한 교양서의 성격이 강한 자료집으로 악보가 채록된 오들또기, 산천초목, 봉지가 3편 외에는 일정한 분류 기준이 없으며, 노래의 첫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 자료를 나열한 데 불과하다. 따라서 민요의 분류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은 노동요를 중심으로 자료수집과 분류가 이루어졌는데, 노동요편에는 맷돌·방아노래, 해녀노래 등 노동요 15종, 타령류편에는 옛타령 4종, 잡요 2종, 만가 2종이, 동요편에는 동요 5종, 자장가, 어희요 각 1종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이 자료집은 기능과 내용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분류를 하고 있으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에 집중되고 다른 노래 자료는 부족하여 체계적인 분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만가를 타령류편에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김영돈은 ⑩에서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 기능을 주된 기준으로 설정하여 기능요는 노동요(농업요, 제분요, 어업요, 벌채요, 관망

요, 잡역요), 의식요(행상노래, 달구노래, 진토굿파는 노래)로 분류하였으며, 비기능요인 창민요에는 오돌또기, 이아흥 서우젯소리 등 17종을 열거하였고, 동요를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여 동식물요, 천체기상요, 유희요, 풍소요, 어회요, 자장가, 기타요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는 ④와 ⑤를 발간하면서 축적된 민요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⑥과 ⑧, ⑨의 동요 분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④에는 특정한 분류표 없이 조사된 지역별로 순서에 따라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⑤는 책의 서두에 김영돈의 제주도 민요 중 노동요의 분류를 소개한 후 읍면별로 우수한 노래를 선별하여 수록하고 있다. ⑥은 제주도 토속민요 중 노동요에 대한 음악적 연구서로 제주도 민요에 대한 분류표를 보면 노동요에는 농업요, 어업요, 제분요, 임업요, 관망요, 잡역요로 중간 분류를 한 다음 하위 분류를 하고 있으나, 의식요는 중간 분류 없이 곧바로 행상소리, 달구질소리, 진토파는 소리, 서우제소리, 꽃염불소리 등 하위 분류를 했다. 이어 자장가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했으며, 통속민요에는 오돌또기, 이아흥타령, 너영나영 등을 배열해놓았고, 마지막으로 동요 항목을 설정하였으나, 동요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만 밝히고 있다. 이 연구서에도 ③이나 ⑩에서처럼 유희요에 대한 분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⑧과 ⑨는 제주도 전승동요를 수합해서 편찬한 자료집으로 ⑧은 ⑩에서 분류한 동요 분류표를 그대로 수용하여 자료를 분류하였고, ⑨는 김영돈의 동요 분류 기준을 따르면서도 저자 나름의 기준을 설정하여 동요를 분류해 놓았다. 그런데 ⑦은 ⑤와 마찬가지로 시군별로 대별한 후 읍면동의 순서에 따라 자료를 수록해 놓았기 때문에 지역별 분류라는 기준 외에 일정한 분류기준은 찾을 수 없다.

지금까지 논의된 자료집이나 저서의 분류상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한국민요의 분류체계 내에서 제주도 민요의 분류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1단계는 최상위 분류로 창자의 연령에 따라 제주도 민요는 민요와 동요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김영돈의 분류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제주도의 민요를 포괄하면서 박경수의 분류에서 제외된 동요의 위상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제2단계는 상위 분류로서 생활상의 기능에 따라 기능요와 비기능요로 1차 분류하고, 이어 기능요는 기능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2차 분류를 한다. 지금까지 김영돈이나 조영배의 분류에 의하면 유희요는 분류 항목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김영돈은 제주도에는 무용·유희요가 전승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분류를 택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강강술래나 월워리청청, 뚝다리 밟기와 같은 무용유희요는 없을지 모르나, 우선 ①의 자료집을 보더라도 오락가로서 장기노래, 골패노래, 걸궁노래와 문답가 등이 있는데, 장기노래, 골패노래는 경기유희요로, 걸궁노래는 세시유희요로, 또한 문답가는 언어유희요로 분류가 될 수 있기에 유희요를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비기능요는 유희적 가창민요이기에 가창되는 지역에 따라 제주전역 가창요와 특수지역 가창요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동요는 놀이의 대상에 따라 동물요, 식물요, 천체기상요, 유희요, 풍소요, 어회요, 자장가로 분류할 수 있다.

제3단계는 중간 단위 분류로서 2단계에서 분류된 유형을 각자의 기준에 따라 하위 유형을 분류한다. 노동요는 농업요, 어업요, 제부요, 벌채요, 관망요, 잡역요 등으로, 의식요는 세시의식요, 장례의식요, 신앙의식요로, 유희요는 세시유희요, 경기유희요, 언어유희요로 분류할 수 있다. 비기능요나 동요는 더 이상 하위단계의 분류가 불가능하므로 제주전역 가창요로서 오돌또기, 이아흥타령, 서우젓소리 등을, 동요는 동물요로서 새, 곤충, 짐승 등 동물 관련 노래를, 식물요로서 풀, 나물, 꽃 등과 관련된 노래를 최종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4단계는 노동요의 경우 하위 단계로의 분류가 가능한 경우의 분류로서 농업요는 논농사요와 밭농사요로, 다시 밭농사요는 농사일의 진행 순서에 따라 밭기는 노래, 밭 밟는 노래, 밭 매는 노래, 타작 노래 등으로 최종분류를 할 수 있다. 어업요는 어부어업요와 해녀어업요로 등으로 나

누면서 동시에 최종 분류를 할 수 있다. (실제 분류에 있어서 노래명은 표준어로 밝히고, 괄호안에는 제주의 현지에서 일컫는 노래명을 쓴다.)

2) 제주도 민요분류의 실제

1. 민요

11. 노동요

111. 농업노동요

김영돈은 농업노동요를 논농사요와 밭농사요를 구분하지 않고 한데 분류하였는데, 이는 논농사요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부 지역이지만 논농사가 행해지고, 이와 관련 민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농사요와 밭농사요로 구분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다.

1111. 논농사요

1111-1. 씨레질노래(설메질소리, 설메썰 이끄는 소리)

1111-2. 밀레질노래(밀레질소리)

1111-3. 벼 훑는 노래(나루 훑트는 소리)

씨레질노래와 밀레질노래는 작업의 목적은 같다는 점에서 논 다루는 노래, 또는 논 삼는 노래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용하는 도구와 작업양상이 차이가 있기에 여기서는 개별 민요로 분류하였다. 씨레질노래는 '설메 썰 이끄는 소리' 라고도 하는데, 소로 '설메'를 끌게 하여 갈아논의 바닥을 평평하게 고를 때 불린다. 반면에 밀레질 노래는 '밀레' (고무래)를 밀고 당기면서 논바닥을 고를 때 불린다. 또한 극히 드물지만 보리 훑는 노래와 같은 가락으로 불리는 벼 훑는 노래가 수집되고 있다. 육지부에서는 논농사요 중 모심기 노래와 논매기 노래가 풍성하게 불려지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아직 수집된 것이 없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논농사가 범한, 강정, 대포 등 일부 지역에서 국한되고, 논외 경작 면적이 협소하다는 지

역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제주도 민요 수집에 있어서 발농사요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논농사요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는 데도 그 연유의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다. 비록 제주도가 한본토와 달리 발농사 위주의 농업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앞으로 논농사가 진행되는 마을을 중심으로 논농사요를 작업 진행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1112. 발농사요

1112-1. 따비질 노래(따비질소리, 밧일구는 소리)

1112-2. 밧 가는 노래(밧 가는 소리)

1112-3. 흙덩이 바수는 노래(곰배질소리, 흑병에 두드리는 소리)

1112-4. 밧 밟는 노래(밧 리는 소리)

1112-5. 밧 매는 노래(검질매는 소리, 사데소리, 아웁기, 흥애기)

1112-6. 타작노래(마당질소리, 도리깨질소리)

1112-7. 보리 훑는 노래(보리 훑트는 소리)

1112-8. 보리거름 밟는 노래(보리거름 리는 소리)

논농사요와 달리 제주도는 다양한 작업 과정에서 발농사요가 많이 불려지고 있다. 김영돈은 마소모는 노래를 발농사요로 분류했으나, 이는 목적과 관련하여 마소를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킬 때 불려지는 만큼 잡역노동요의 물이노동요로 분류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흙덩이 바수는 노래는 작업 도구와 관련하여 밧 곰방메질 노래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노래는 밧을 갈고 난 후 밧 밟기에 앞서 곰방메로 흙덩이를 바수면서 부르는 노래로 노래의 가락이 곰방메를 내리치는 연속동작과 관련되어 단조로우며, 사설 내용도 작업의 실태를 주로 노래하고 있다.²³⁾ 발농사요에서 씨를 뿌린 후 '섬피'를 끝맺는 씨를 덮어주는 작업에서 불려지는 '섬피질노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23) 박경수, 앞의 책, 37쪽.

112. 어업노동요

어업노동요는 남성들이 하는 어로작업과 관련된 노래와 해녀들이 물질 작업과 관련된 노래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지만, 한반도에 비해 어업노동요는 다양하지 못하다. 이는 어업의 규모가 작은 데서 그 연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조사상의 어려움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해녀노래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게 전승되어 왔으며, 그 수집 자료 역시 풍성하다.

1121 어부어업요

- 1121-1. 배 젓는 노래(네 젓는 소리, 노 젓는 소리)
- 1121-2. 뗏목 젓는 노래(테배 젓는 소리, 테우 젓는 소리)
- 1121-3. 새 뗏목 띄우는 노래(새 띄우 띄우는 소리)
- 1121-3. 멸치 후리는 노래(멜 후림 소리)
- 1121-4. 갈치 낚는 노래(갈치 나끄는 소리)

1122. 해녀어업요

- 1122-0. 해녀노래(해녀질 소리, 해녀 네 젓는 소리)

어업노동요에 대해 고정옥은 뱃노래와 해녀노래로 매우 단순하게 분류하였고, 임동권은 노 젓는 노래, 어부 노래, 뱃노래, 해녀요로 대강의 종류만 분류²⁴⁾해왔다. 이에 따라 어업노동의 진행 순서나 과정에 따른 노래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뱃노래나 해녀노래에 대한 조사에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김영돈은 『제주도민요연구』(상) 자료편에서 어업노동요로 해녀노래만을 수록했으나, 그후 『제주도민요연구』(하)에서는 어업노동요를 해녀노래, 배 젓는 노래, 뗏목 젓는 노래, 새 뗏목 띄우는 노래, 멸치 후리는 노래, 고기 낚는 노래, 갈치 낚는 노래 등 7종을 분류하였으나, 어부어업과 해녀어업에 대한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4) 박경수, 앞의 책, 40쪽.

김영돈이 분류한 고기 낚는 노래는 조사된 자료가 없고, 갈치 낚는 노래가 곧 고기 낚는 노래이기에 고기 낚는 노래는 별도의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제주도의 어업노동요를 보면 박경수가 분류한 배 올리는 노래, 배 닦는 노래, 그물 신는 노래, 닻 감는 노래, 그물 내리는 노래 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노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제주도의 경우 남성 어부들이 흔하진 않지만 배를 저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를 해녀들이 노젓는 노래와 구분하여 배 짓는 노래²⁵⁾라고 한다. 멧목 짓는 노래에 대해 박경수는 노젓는 노래와 기능상 차이가 없으며 사설에서도 상통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노 젓는 노래와 함께 처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사된 자료를 볼 때 사설의 일부 상통하는 면이 있으나, 가락과 노 젓는 양상의 차이, 멧목 배를 짓는 작업 공간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를 개별노래로 분류하였다.

해녀노래는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제주도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되는 대표적인 해녀어업요이다. 해녀들이 '꺾물질'을 하기 위해 헤엄쳐 나가면서도 부르고, '멧물질'을 하러 나갈 때 노를 저으면서도 부른다. 그러나 조사된 자료를 보면 해녀들이 출가 과정에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주종을 이룬다. 그러기에 해녀 노 젓는 노래가 기능성을 살린 노래명칭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해녀들이 헤엄치면서 부르거나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래를 보면 사설이나 가락에 뚜렷한 차이가 없기에 해녀노래 한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113. 제분노동요

곡식을 방아로 찼거나 멧돌로 갈면서 부르는 민요를 말한다. 제주도는 한본토와 달리 길쌈 노동보다는 제분 노동이 여성이 담당했던 중요한 작

25) 비기능요인 뱃노래와 구분하면서 동시에 노래의 기능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배 짓는 노래라고 한다.

업이었기에 유형은 다양하지 않지만, 불러지는 각편은 풍성하며, 오랜 시간 지속되는 작업인 만큼 불러진 각편들을 보면 작업 실태보다는 서정성을 띤 사실이 주로 불러지고 있다.

1131. 멧들노동요

1131-0. 멧들노래(ㄱ레ㄱ는 소리)

1132. 방아노동요

1132-1. 방아노래(남방에 짙는 소리)

1132-2. 연자방아노래(몰방에 짙는 소리)

멧들노동요는 작업 순서나 멧들의 종류에 따른 다른 유형이 없이 멧들노래 한 가지만 전승되고 있다. 이에 반해 방아노동요는 '남방에'와 '몰방에'라는 작업 형태에 따라 노래의 차이를 보인다. 방아노래는 여성들이 통나무로 된 절구를 쥘으면서 부르는 노래인 반면 연자방아노래는 마소의 힘을 이용하여 연자방아를 돌려 한꺼번에 많은 곡식을 쥘 때 부르는 노래로 연자매노래라고도 한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한본토에서 흔히 불러지는 디딜방아노래나 물레방아노래가 전승되지 않고 있다. 연자방아노래는 제주도에서만 전승되고 있는데, 이는 한본토의 경우 물레방아나 디딜방아에 의한 작업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4. 벌채노동요

벌채노동요는 산에서 나무를 할 때, 들에서 풀을 벨 때나 나물을 썰 때, 갯가에서 해물이나 어패류를 채취할 때 등의 일상 생활에서 불러지는 노래로 벌목요와 채취요로 분류할 수 있다. 나무와 관련된 노래이기에 임업요로 볼 수도 있으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노래는 불러지지 않고 벌목에 관한 작업에서만 노래가 불러지고 또한 소에게 먹일 풀을 베어 거둬들이는 작업에서도 노래가 불러지므로 벌채요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분노동요가 여성중심의 노래였다면, 벌채요는 남성중심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작업의 고통이 크고 장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작업 실태와 관련된 사실이 주를 이룬 노래가 일부 지역에서 전승될 뿐이다.

1141. 벌목요

1141-1. 나무 베는 노래(도치질 소리, 낭꾼치는 소리, 낭꾼치는 툽질소리)

1141-2. 나무 켜는 노래(낭싸는 소리, 낭싸는 툽질 소리)

1141-3. 나무 쪼개는 노래(낭개는 도치질 소리)

1141-4. 나무 깎는 노래(낭 가끄는 자귀질 소리)

1142. 채취요

1142-1. 풀 베는 노래(출비는 소리, 출비는 흥애기)

한본토에서는 벌목요로 강원도나 경상도 산간지방에서 불려지는 어사용 계열의 나무꾼 노래가 많이 불려지고 있으나, 제주도는 특유의 나무꾼 노래를 찾아볼 수 없다. 나무 베는 노래는 주로 툽을 이용하는 경우의 명칭이며, 도끼를 이용할 경우에는 나무찍는 노래라고도 할 수 있다. 나무 켜는 노래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툽질을 하면서 부른다는 점에서 툽질 노래라고도 한다. 나무 쪼개는 노래는 도끼로 뿔나무를 쪼개면서 부르는 도끼질 노래이고, 나무 깎는 노래는 자귀로 집 지을 나무를 다듬는 작업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김영돈은 나무 내리는 노래를 벌목요로 분류했으나 이 노래는 산에서 베어낸 나무를 목도메기나 마소를 이용하여 집으로 운반하는 과정에 불려지는 노래이기에 잡역요 중 운반노동요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민요 중 채취요로는 겨울에 소에게 먹일 '출'(풀의 제주어)을 들에서 긴 낫으로 베어내면서 부르는 풀베는 노래가 유일하다. 베어온 풀을 작두로 썬 풀썬는 노래도 전승됨직하지만 아직 조사된 자료는 보이

지 않는다. 그 외 목화따는 노래, 나물캐는 노래, 뽕이나 밤 등 열매따는 노래, 조개나 해조류 등 해물을 채취하는 노래가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조사된 자료가 없지만, 산간마을이나 해촌마을을 중심으로 전승유무를 조사해 볼만하다.

115. 관망노동요

관망노동요는 가내에서 망건, 탕건, 양태, 갓모자 등을 만드는 작업 과정에 불려지는 노래이기에 수공업노동요로 묶을 수도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갓일과 관련되고, 여성들에 의해 주로 불려진다는 점에서 개별 항목으로 독립시킬 만하다.

1150. 관망노동요

- 1150-1. 망건노래(망건 줄는 노래)
- 1150-2. 탕건노래(탕건 줄는 노래)
- 1150-3. 망건노래(탕건 줄는 노래)
- 1150-4. 갓모자노래(갓모자 줄는 노래)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말총으로 망건과 탕건을 뜨거나, 대오리로 갓양태나 갓모자를 결으면서 불렀던 노래다. 그런데 이 노래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쪽은 화북, 삼양, 조천까지, 서쪽으로는 애월까지의 지역에 여성들에 의해 주로 불려졌다. 수공업으로 생산된 물건들은 관덕정 마당에서 열린 시장에 대다 팔아 부업으로 삼을 만큼 여성들에게 중요한 작업의 하나였다.

116. 잡역노동요

민중들의 생활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주된 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부차적인 일과 관련된 민요를 잡역노동요로 분류하고 있다. 잡역

노동에서 전승되는 노래를 작업의 양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1161. 운반노동요

1161-1. 방앗돌 굴리는 노래(물방앗돌 끄어내리는 소리)

1161-2. 나무 내리는 노래(술기소리, 낭 끄어내리는 소리)

1162. 토목노동요

1162-1. 집터 다지는 노래(원달구소리)

1163. 수공노동요

1163-1. 풀무질노래(불미소리, 토불미·디담불미·똑딱불미소리)

1163-2. 흙 이기는 노래(질림소리)

1163-3. 짚 두드리는 노래(덩두렁마깨소리)

1163-4. 짚줄 놓는 노래(짚줄 놓는 소리)

1164. 길쌈노동요

1164-1. 물레노래(섶 뽑는 소리)

1164-2. 베틀노래(베클소리)

1165. 물이노동요

1164-1. 마소 모는 노래(마쉬 모는 소리)

잡역노동요 중에 가사노동요인 빨래 노래, 다듬이질 노래, 바느질 노래는 전승되었을 법 하지만, 아직까지 조사된 자료가 없다. 박경수는 자장 노래를 가사노동요에 분류시켰으나, 필자는 동요로 분류하였기에 여기서 논외로 한다. 또한 제주도에서도 염전이 있어서 소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염노래는 조사된 바 없고, 잡아올린 고기나 거뒀던 곡식을 새는 산술노동요도 찾아볼 수 없다.

12. 의식요

의식요는 민중들이 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한 과정으로 불려지는 민요들을 말한다. 세시풍속이나 장례의식과 관련된 순수 민간의 의식요와 무가나 불가에서 파생된 의식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제주도의 의식요는 장례의식요가 주종을 이루면서 전승되고 있을 뿐 그 유형은 다양하지 못하다.

121. 세시의식요

1211. 가정의식요

1211-1. 안택노래

1211-2. 성주풀이노래

122. 장례의식요

1221. 장례운구요

1221-1. 행상노래(상여소리)

1221-2. 꽃염불노래

1222. 장례토목요

1212-1. 진토굿파는 노래

1212-2. 달구노래

123. 신앙의식요

1231. 불교의식요

1231-1. 회심곡

1232. 무속의식요

1232-1. 귀신 쫓는 노래(새 드리는 소리)

1232-2. 뉘 들이는 노래

제주도 민요 중에서 세시 의식요는 민요로서 조사된 자료는 없으나 신에게 기원과 주문의 성격이 강한 개인의식요의 경우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정월 보름을 기해 집주인이 토지신이나 성주신에게 안택을 기원하는 주문을 한다는 점에서 안택노래를 설정해 보

왔고, 주택을 완공한 후 성주신을 모시는 무속의례에서 불려지는 성주풀이가 민요화되어 불려지는 노래는 가끔 조사되고 있어서 분류항목으로 설정했다. 제주도의 장례의식요는 행상노래, 달구노래가 주로 이루고 있으며, 가끔 진토긋 파는 노래가 조사되고 있다. 아울러 신앙의식요로 불교의식과 관련하여 회심곡이 민요화되어 불려지는 경우가 있으며, 무속의식요로는 귀신 쫓는 노래, 일명 새드리는 소리와 와 넋 들이는 노래가 간혹 불려지는 사례가 있어서 항목을 설정해 보았다. 박경수는 무속의식요와 속신의식요를 구분해서 분류하고 있으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에 필자는 무속의식요로 포괄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앞으로 무속과 관련하여 신에게 비는 노래, 액막이 노래, 동토잡이 노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뒤따라야 이 분류항목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3. 유희요

놀이를 진행하면서, 놀이의 진행을 위해 또는 놀이에다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불려지는 노래가 유희요이다. 놀이는 휴식이면서 동시에 역경을 극복하게 하고, 새로운 삶의 활기와 즐거움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놀이에서 불려지는 노래는 삶의 활기와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131. 세시유희요

1311. 걸궁노래

132. 경기유희요

1321. 장기노래

1322. 골패노래

133. 언어유희요

1331. 문답가

제주도 민요에서 아동들이 부르는 동요의 유희요는 많은 편이나 성인 유희요는 극히 드물고 또한 조사가 미흡하다. 특히 무용유희요는 전혀 전승되는 것이 없으며, 축제유희요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제주도민의 놀이를 즐길 만큼의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앞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는다. 위의 자료는 진성기의 『남국의 민요』에 수록된 오락가를 노래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으로, 걸궁노래는 세시의식요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장기노래와 골패노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해 승부를 가르는 놀이라는 점에서 경기 유희요로 분류했다. 그리고 문답가는 언어유희요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앞으로 끝말잇기노래, 글자풀이노래 등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14. 비기능요(유희요, 창민요)

생활상의 특별한 기능을 지니지 않고 다만 노래 자체의 즐거움과 흥겨움을 기능으로 하는 유희요에 대한 분류는 이 노래가 지닌 선율적 특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제주도의 유희요에 대해 전승, 향유되는 지역과 그 범위에 따라 제주전역에서 가창되는 유희요와 특수지역에서 가창되는 유희요로 나누어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다.

141. 제주전역 가창 유희요

- 141-1. 오돌또기
- 141-2. 이야흥
- 141-3. 너영나영
- 141-4. 서우젯소리

142. 특수지역 가창 유희요

- 142-1. 용천검
- 142-2. 관덕정앞(신목사타령)

- | | |
|---------------|--------------|
| 142-3. 산천초목 | 142-4. 봉지가 |
| 142-5. 질근악 | 142-6. 동풍가 |
| 142-7. 개구리타령 | 142-8. 매화타령 |
| 142-9. 중타령 | 142-10. 계화타령 |
| 142-11. 오강산타령 | 142-12. 사랑가 |
| 142-13. 연변가 | 143-14. 사거리 |
| 143-15. 제주아리랑 | |

제주전역 가창 유흥요는 제주도내 여러 곳에서 널리 일반화되어 전승되는 노래로, 웬만한 소리꾼이라면 유흥 현장에서 이들 노래를 즐겨 부른다. 특히 대표적인 오돌또기는 전국에 퍼졌던 노래로 제주도에 유입되어 변모, 정착된 노래로 파악된다. 또한 서우젯소리는 무속의 석살림 재차에서 불려지던 놀이무가였던 것이 유흥성과 흥겨운 가락으로 인해 일반 민중사이에서 유흥요로 전환된 노래로, 현재도 무속 현장은 물론 유흥 현장, 발매는 노동 현장에서 불려지는 등 복합적 기능을 지닌 민요로 확대되고 있다.

특수지역 가창 유흥요는 조선조 5백년 동안 정의현청 소재지였던 정의고을, 즉 지금의 표선면 성읍리에서 집중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웃 마을인 가시리, 제주목의 옛고을이었던 제주성안, 대정현의 옛고을인 대정읍 보성, 인성, 안성리, 그리고 제주의 관문 역할으로서 조천관의 소재지였던 조천리 등지에서도 일부 전승되고 있다.

2. 동요

아이들의 노래인 동요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의 시작은 임동권에 의해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동물요, 식물요, 연모요, 애무·장요, 정서요, 자연요, 풍소요, 어회요, 수요, 유희요, 기타요로 나누어 노래를 분류하고 있다. 그는 노래의 소재와 내용 등을 주된 기준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그후 박경수는 동요를 민요에 포함시켜 유희요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해 놓았

는데, 주로 경기유회요, 조형유회요, 풍소유회요, 언어유회요 등이 동요에 해당하고 있다. 좌해경은 임동권의 분류를, 윤치부는 박경수의 분류를 근간으로 제주도 전승동요 자료를 정리해 놓고 있다. 필자는 임동권의 분류를 근간으로 하면서 박경수의 분류를 일부 수용하여 아래와 같은 분류안을 마련해 보았다.

21. 동물요

211. 조류노래 212. 짐승노래요 213. 곤충노래 214. 어류노래

22. 식물요

221. 나무노래 222. 풀노래 223. 나물노래 224. 꽃노래

23. 천체기상요

231. 해와 달 노래 232. 하늘과 별 노래 233. 바람과 구름 노래
234. 눈과 비 노래 235. 물과 얼음 노래 236. 바위와 산 노래
237. 안개와 서리 노래

24. 유희요

241. 동작노래 242. 곡예노래 243. 조작노래 244. 그림노래

25. 풍소요

251. 인물노래 252. 신체노래 253. 버릇노래

26. 어회요

261. 글자풀이노래 262. 말장난노래

27. 가족요

271. 부모노래 272. 형님노래 273. 계모노래
274. 오라버니노래 275. 형부노래

28. 자장가

281. 아기 재우는 노래 282. 아기 어르는 노래

이상과 같은 제주도 민요의 분류체계는 제주도 민요의 분포와 전승 실태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한반도 민요와 대비하여 그

제주도 민요의 특징을 판별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요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자 할 때 자료의 분류에도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제주도 민요를 조사함에 있어서 불교, 무속 등과 관련된 신앙의식요, 세시 풍속과 관련된 세시의식요 등과 유희요에 대한 관심과 조사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분류를 통해 제주도 민요는 노동요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는 것과, 무용유희요가 전승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유희요는 극히 드물다는 유희요의 실상을 알려줌과 동시에 해녀노래, 밭 밟는 노래, 풀베는 노래, 양태노래, 방앗돌 굴리는 노래 등 제주도가 지닌 유다른 생업으로 인해 제주도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되거나 제주도에서만 전승되는 노동요들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해주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민요자료의 수집을 통해 제주도 민요의 분류체계를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이것은 제주도 민요에 대한 연구의 정보 제공과 더불어 제주도 민요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5. 결론

한국 민요의 분류체계를 고찰함으로써 제주도 민요의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도 민요의 존재양상을 여실히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민요 연구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 분류업적에 대한 검토를 통해 1차 분류기준으로 창자를 설정하고, 창자의 연령에 따라 성인의 부르는 민요와 아동이 부르는 동요로 구분하였다. 2차 기준으로는 기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민요는 기능요와 비기능요로, 기능요는 다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비기능요(유희요)는 전승 지역에 따라 제주전역 가창 유희요와 특수지역 가창 유희요로 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동요는 놀이의 소재(대상)와 내용에 따라 동물요, 식물요, 천체기상요, 유희요, 풍소요, 어회요, 가족요, 자장가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제주도 민요의 하위 유형을 나름대로 분류하여 체계를 세워 보았다.

앞으로 본론에서 검토한 학자들의 분류안 외에 강등학, 이창식, 최상일 등의 민요분류에 대한 검토는 물론 중국, 일본, 서구 등 외국의 민요분류에 대한 검토²⁶⁾가 더 필요하다.

민요는 공동체적인 문화요소를 지니고 있기에 전승되는 각편들을 보면 기능간에 넓나들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런 복합적, 유동적 기능을 지닌 민요의 경우는 그 분류에서 더욱 세심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민요분류는 창작, 기능, 내용, 가창방식, 창곡, 율격, 장르, 지역, 시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민중들의 생활상의 필요라는 기능성을 기준으로 상위 분류가 이루어질 때 민요의 유형이 지닌 위상과 성격을 좀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나 내용, 가창방식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한 분류는 한국민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만, 꾸준히 접근해야 할 분야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26) 김도훈, "민요분류 방법론 연구", 『민요론집(제7집)』(민요학회, 2003), 63~85쪽. 김도훈은 상위 분류에 초점을 두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서구의 분류안을 간략히 검토하고, 기능과 민중의 역동성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무현, 『한국노동민요론』, 집문당, 1986.
김무현, 『한국민요문학론』, 집문당, 1987.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하)』, 민속원, 2002.
민요학회 편, 『민요론집』(제7집), 민속원, 2003.
박경수, 『한국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1998.
윤치부, 『제주전래동요사전』, 민속원, 1999.
임동권, 『한국민요집』, 동국문화사, 1961.
정동화, 『한국민요의 사적연구』, 일조각, 1981.
제주도, 『제주의 민요』, 제주도청, 1992.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 연구』, 도서출판 예술, 1992.
좌혜경, 『제주전승동요』, 집문당, 1993.
김홍규·김우창 공편, 『문학의 지평』, 고려대출판부, 1984.